



진흥회 동정

## 인도 전기전자공업협회(IEEMA) 회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최근 인도 전기전자공업 협회 K. Vasudenvan 회장을 초청하여 인도 업체와의 합작투자 및 교류 촉진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인도 전기공업 시장동향 설명을 비롯하여 인도내에서 우리업체가 전기기기 입찰시 15%를 더하는 Domestic preference 관행에 대한 철폐계획, 인도의 높은 관세율에 대한 인하대책, 수입절차, 인도전력청 납품방법등 인도 진출에 대한 문제점 및 정보등을 집중 논의하였고 또한, 변압기, 애자, 절연물, 전선, 전동기 등 양국간의 전기제품에 대한 기술협력 방법 등 양국간의 전기제품에 대한 기술협력 방법, 품질수준, 인증제도, A/S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협력 및 유대 강화에도 힘 쓸 것을 서로 합의했다.

특히, IEEMA 회장은 '91년 부터 인도 정부는 수입절차 간소화, 외국업체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등 개방정책을 추진하므로써 세계적

유수기업인 GEC, ABB 등이 이미 인도내 합작투자 방식 등으로 진출해 있다며, 한국 전기업체에서도 인도내 투자기회를 십분 활용해 적극 진출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양국간의 기술협력등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99. 1. 21~1. 27(7일간)까지 인도 뭍바이에서 3년마다 개최되는 ELECRAMA '99(인도 전기전자 전시회)에 한국의 전기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인도뿐만 아니라 주변 서남아, 중동지역 등에 수출촉진 및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동 전시회에 한국 전기기기 홍보관을 운영, 홍보 및 인도 진출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인도전기전자공업협회는 한국전기공업진흥회와 '95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정보교환등 돈독한 유대관계를 가져왔으며, 회원업체도 400여개에 이른다.